

경제위기 속 여성노동자 직장살이 집중상담

“당신은 직장에서 안전하십니까?”

Upgrade!

부.당.한. 경영권, 인사권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압박에 대응하는 기본자세

어려울수록, 위기상황일수록, 회사가 망해갈지언정 모든 일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월급 이상으로 여러분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 왔고,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회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견딜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상황에 끌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회사가 어렵고,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한다면!

☞ 다음의 5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이어지는 상황별권리찾기방법을 틔내는 대로 학습하세요.

1.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양보와 희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 지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대한 나의 헌신과 업적을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보와 희생이 꼭 필요한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제안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버립니다.

- 회사의 전체 경영은 회사의 책임이고 상황이 어렵게 됐다면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사용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되 개인이 희생하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회사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나를 위로하고 최대한 보상해야 합니다.

- 회사를 돕기로 결정했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고는 최후의 방법일 뿐, 어렵다고 제일 먼저 희망퇴직, 구조조정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인사 조치는 회사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사가 말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버티는 게 힘들어도 더 힘든 상황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다면 퇴직위로금은 3개월치가 아닙니다. 퇴직위로금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말 그대로 퇴직으로 힘든 나를 위로할 만큼, 내가 퇴직을 희망할 만큼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위로금은 절대 큰 액수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3. 회사와의 모든 약속은 잘 기록해 둡니다.

회사가 안정화됐다면 경영안정을 위한 임금삭감, 휴업, 대기발령 등의 임시 조치는 바로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즉시, 원상복귀를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다면 ()만 남아있는 서약서는 위험합니다. 협의 과정도 잘 기록하고 중간중간 태도가 바뀌지는 않는지 감시하면서 약속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록된 모든 내용은 권리찾기를 위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싸울 수밖에 없다면,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회사는 여러분이 여성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권리를 찾기 위한 멋진 일입니다. 위로금을 받고 끝낼 수도 있지만 차별과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습니다. 싸우기로 결정했다면 최선을 다해 일관된 태도로 하셔야 합니다.

5.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동료, 여성단체가 지지, 응원합니다.

인사팀 호출, 상사의 호출로 사직서를 쓰라는 압력에 시달리시나요? 눈치가 보이고 회사생활이 답답하다면 혼자 앓지 마세요. 주변의 동료들, 여직원회, 노동조합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과 같은 여성단체에 상담하세요. 회사 안팎에서 당신의 힘이 되어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q5050@womenlink.or.kr